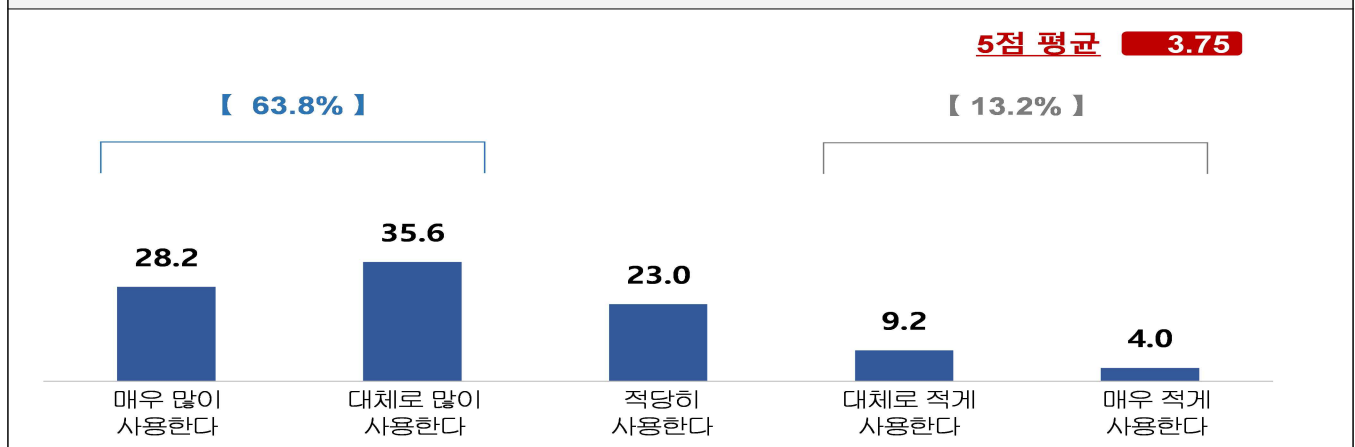
 미래소비자행동 <small>Consumer Action for Future</small> www.can.or.kr	보도 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3년 12월 05일 (화)
	담당부서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녹색소비실천본부 ☎ 02-706-1372 사단법인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사무국 ☎ 070-8691-3596, 010-4691-6538

“국민 83%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인식 66.4%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

(사)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과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이사장 김성기)는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11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여론조사전문업체인 (주)씨앤아이 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전국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인구비례 할당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금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3%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사용량이 많다”고 인식하고, “적게 사용한다”는 인식은 13.2%에 불과하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과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민의 78%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영향이 미미하거나 적다는 인식은 5.2%에 불과하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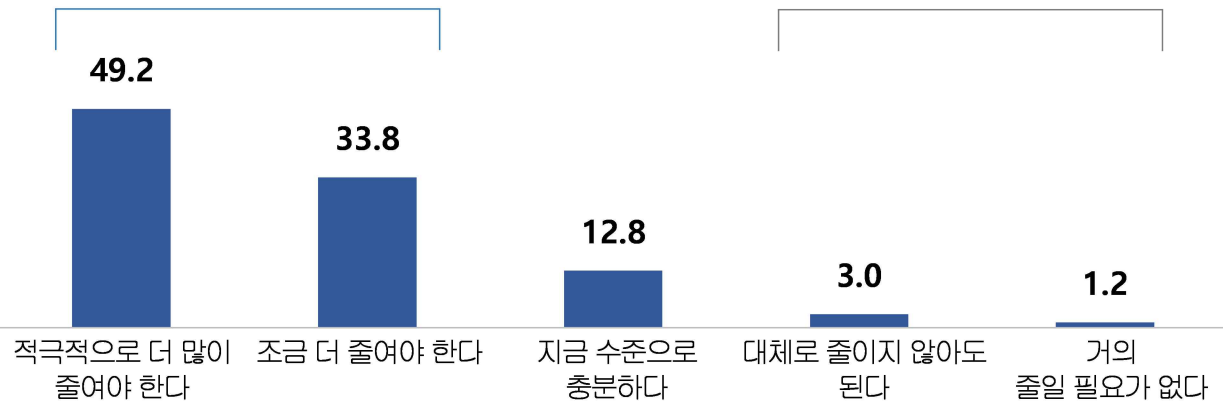


(일회용품 사용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 귀하는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어느 정도 줄여야 할 것 같습니까?

5점 평균 4.27

【 83.0% 】

【 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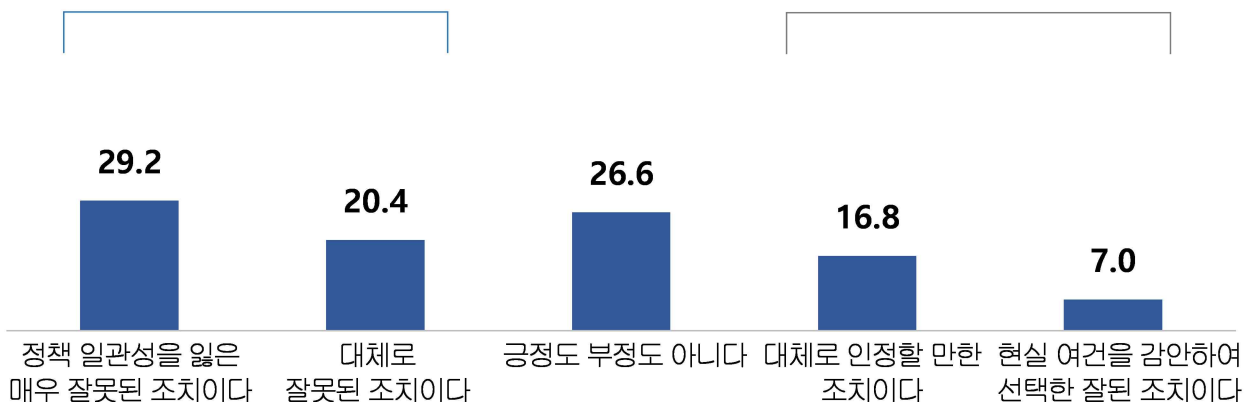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 절반가량(49.6%)은 “정책 일관성을 잃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결과는 며칠 전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부정적 인식 50.2%와도 유사하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한 인식)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에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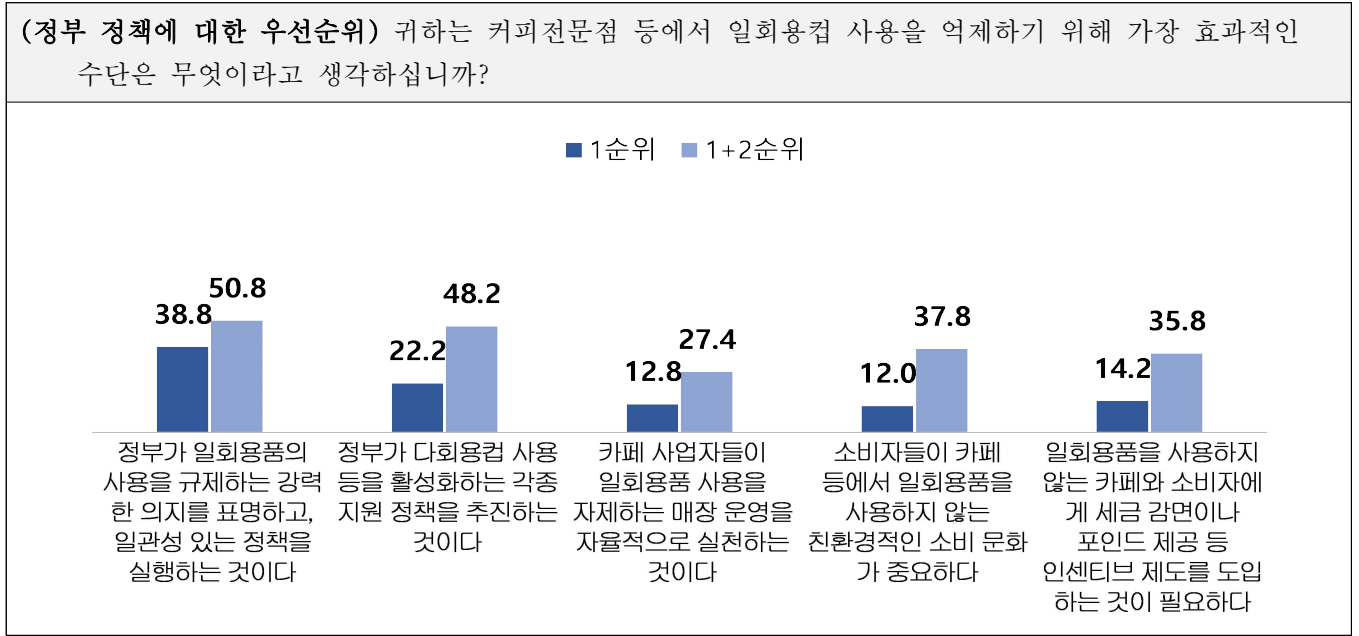
5점 평균 3.48

【 4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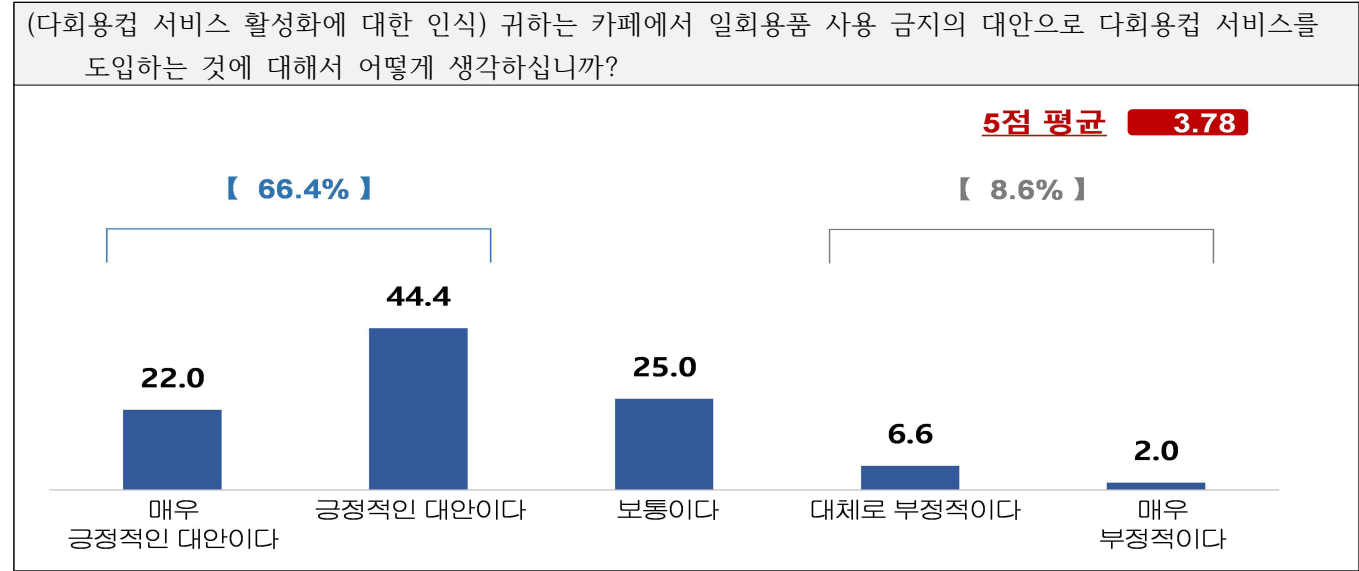
【 2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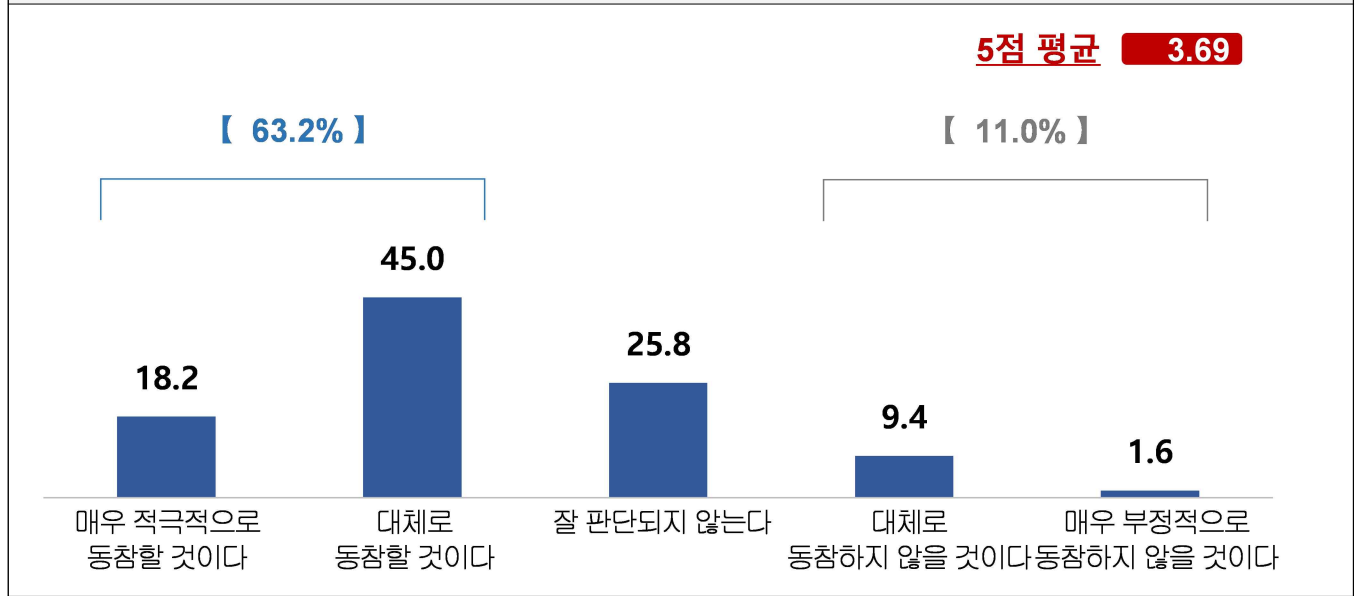
환경부는 11월 7일 규제 철폐를 발표하면서, 지자체와 사업주의 자율적인 노력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금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38.8%는 “정부가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응답하였고,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12.8%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2/5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중요하며, 자율적인 실천을 중시하는 인식은 규제정책과 비교하여 1/3에 불과했다.



최근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장례식장이 늘고 있다. 금번 조사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확인하였다. 국민의 3분의 2(66.4%) 카페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의 대안으로 다회용컵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또한, 소비자들의 다용회컵 서비스 참여 의향(63.2%)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다회용컵 이용 의향) 귀하는 카페에서 다회용컵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사)미래소비자행동의 조윤미 상임대표는 “정부의 발표는 소비자와 시장에 종이컵을 써도 된다는 인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아니라고 여론을 무마하려고 하지만, 실제 사업주들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금번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일회용품 사용 억제는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 정책하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소비자 참여 운동 등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김성기 이사장은 “금번 정부의 정책으로 다회용기 업계의 피해가 상당하다. 거의 대다수의 회원사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했다가 시장 축소로 경영의 위기에 봉착할 것 같다”고 호소한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일회용컵 반입금지 후 다회용컵 사용율이 10배 높아지는 상황을 실제 경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일회용품의 사용금지와 일회용품 반입금지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경영 위기에 봉착한 다회용기 업계의 지원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